

5-3=2, 2+2=4, 4+4=8로 행복을 만듭시다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네 번째 주제법문 ‘전법의 등을 밝힙시다’

“도량에는 풀 향과 꽃 향이 어울려 피고 있습니다. 벚꽃은 눈처럼 날리어 갔습니다. 곧 녹음으로 우거지는 여름을 지나 단풍과 열매를 맺는 가을이 가고 나면 겨울이 옵니다. 꽃 시절, 계절의 변화를 보며 우리를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4월 28일 봉은사에는 공부열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도영 스님은 완주 송광사 범소식을 전하며 법문을 시작했다.

“마음밖에 법이 없다[心外無法]고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즐거움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생각과 현실이 상반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성질이 나고,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이 부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날 도영 스님은 <대승기신론>을 중심으로 한 수행정진과 포교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대승기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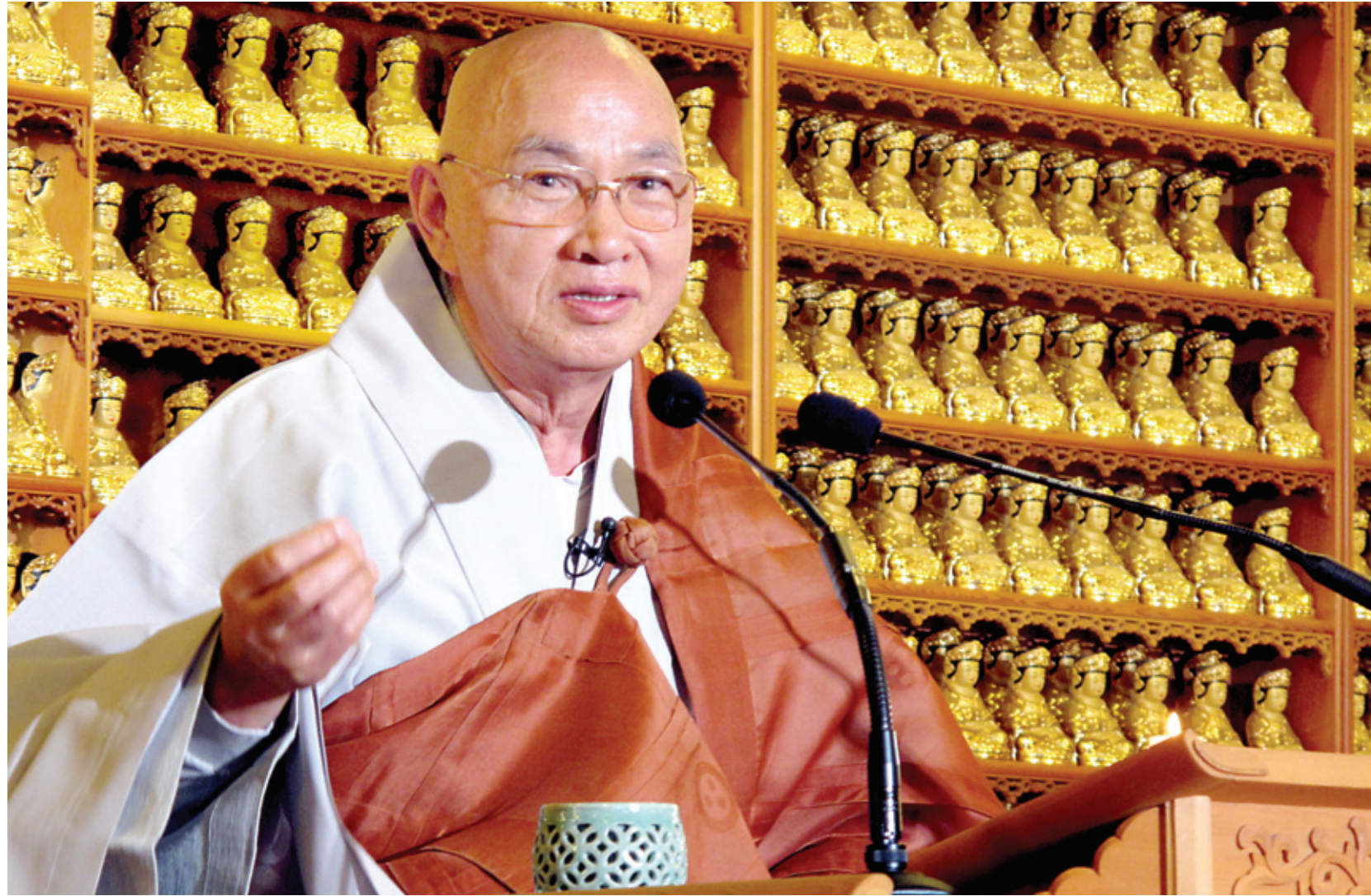
<대승기신론>을 기반으로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보살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승기신론>은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사신(四身) 오행(五行) 육자염불(六字念佛)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일심(一心)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 두 방면[二門]으로 설명합니다. 일심에 이문(二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의 이상세계와 윤회의 타락세계로 갈 가능성이 똑같이 있음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진여문에 있고 우리는 생멸문에 있습니다. 이 진여문은 해탈열반(解脫涅槃)의 세계이고, 생멸문은 업을 짓고 그 업에 따라 나고 죽는 윤회(輪廻)의 세계입니다.

한마음을 두 개의 문으로 나눠 가니 가난하고 끊임없이 괴로운 것입니다.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체(體)·상(相)·용(用)을 삼대(三大)라고 합니다. 거울이 체(體)라면 거울의 모양은 각기 다른 것이 상(相)입니다. 어딘가에 쓰는 것인가가 용(用)입니다. 마음의 본체와 양상, 작용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삼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질을 바르게 알아 어떻게 잘 쓰여 질 수 있는지 깨쳐야 합니다.

사신(四信)은 불(佛) 법(法) 승(僧) 진여(眞如)입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듯이 삼보에 삼신(三神)이고 근본신입니다. 진여와 불법승 삼보는 마음속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진여의 자리, 깨달음의 지혜(知慧) 진리(眞理) 그리고 진리를 깨닫기 위



해서 수행(修行)하는 것입니다. 본래 믿음이 곧 사신입니다.

사바세계에서 발심해 깨닫고자 한다면 오행,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에 아무리 진여의 문과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데에 수행이 없다면 깨달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행(五行)은 곧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선정정진) 육바라밀로 배품과 나눔이 하나 되는 삶, 도리를 다하는 삶,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오행 수행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온 오늘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한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행은 사바세계에서 끊임없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행에서 선정과 지혜는 돌이켜서 하나입니다.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나옵니다.

정진바라밀은 힘없이 떨어지는 낙숫물이 단단한 돌을 뚫듯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세입니다. 한 스님이 출가 후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자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지 못하고, 출가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하던 중 바위를 깔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무엇을 하냐고 묻자

“이렇게 가면 어느 날인가 바늘로 쓸 수 있는 가느다란 돌맹이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 깨진 스님이 끊임없이 수행해 대선사가 됐습니다.

육바라밀, 보살도를 실천했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내세에는 성불하게 됩니다. 불법은 늘 그대로입니다. 꽃피는 대지에 똑같이 내리는데 이익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는 것은 중생의 그릇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포교는 부처님 유언

연등(燃燈)에서 ‘연’은 불사른다는 뜻입니다. 사바세계에서 거듭거듭 보살도를 사람들에게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면서 등을 밝히십시오. ‘빈자일등(貧者一燈)’은 정성을 다해서 불을 밝힌다는 뜻 말고도 어려운 곳을 돕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른다는 생각으로 이웃과 나누십시오. 형편에 따라 성의껏 하면 됩니다.

거리를 아름답게 밝히는 연등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등하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등을 나누며 인연을 맺어보십시오. 나누는 것만으로도 포교가 됩니다. 전법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교는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포교입니다. 대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합니다.

포교를 하는 것은 주인공게 사는 모습입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삶, 당당하고 떳떳하며 진실한 사람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혜이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불하기 위해 포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등지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힘입니다. 개인해탈을 중시하며 조직화에는 무관심한 것은 불교의 병폐입니다. 조직을 갖고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하기 위해 나누는 삶을 영위해야겠습니다.

행복의 조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 이해,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5-3=2 오해했을 때 상대의 입장에서 3만만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2+2=4 이해하고 이해하니 사랑하게 된다.’

‘4+4=8 사랑하고 사랑하니가 필자가 바뀐다.’

행복의 조건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기복(祈福)이 아니라 작복(作福)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늘 “당신이 있기에 행복합니다”라고 표현하십시오. 더 많은 것, 높은 지위를 바라는데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불교는 행복의 길잡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고 살아가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의 길은 지혜·행복의 길임을 널리 알려십시오.

중생심을 초월하여 청정심을 찾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계정해 삼학에서 본래 청정한 마음이 물들지 않고 본래 청정했던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이 계입니다. 상대가 경계에 부딪혀 비방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정리=이상연 기자**

도영 스님은?

1935년 전북 부안 출생. 1961년 김제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1년 금산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범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함천 해인사와 통도사선원에서 5하안거를 성만했으며 1967년 금산사 총무국장, 1969년 김제 흥복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1980년, 1984년, 1994년 세 번에 걸쳐 김제 금산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제8~10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 초재심 호계위원을 역임했다. 1999년 제11회 포교대상을 수상하고, 2001년 조계종 포교위원장에게 취임한 후 임기 5년을 채운 첫 포교위원으로 2006년 9월 퇴임했다.

현재 완주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아 가람을 수호하고 신도교육과 수행을 지도하며 불법홍포의 원력을 펼치고 있다.

한마음을 둘로 나누니 힘들고 괴로운 것 집착과 공포 없는 한결같은 삶 살아가

가 가장 중요합니다.

육자(六字)는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입니다. 아미타불은 단순회 천도제, 49재를 잘 지내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서 극락 같은 삶을 사는 자가 극락을 갑니다.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6 자이기 때문에 육자염불이라며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염불할 수 있는 예를 든 것 뿐입니다. 바른 수행활동은 연행이 일치되고, 결과 속이 다르지 않은 데 있습니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옻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물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물 177종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원출판사 | 감상목 저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만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리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을 검색하세요

휘나햇 반신욕기는 옻을 입은 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 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던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에 목욕(세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세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 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 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특제 제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반상발열제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한인원가적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입사원모집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